

## 성소수자의 커뮤니티 참여 의미에 대한 연구\*

- Giorgi 현상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

손 소 연<sup>+</sup>

(서울시미혼모부자지원기관)

이 지 하<sup>++</sup>

(숭실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 참여경험을 통한 의미본질을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진입하고자 하는 이유와 커뮤니티 활동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본질적 의미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성소수자 8명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심층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성소수자들의 참여는 13개의 의미단위와 6개의 도출된 주제, 3개의 본질적 주제로 나타났으며, 그 주제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오아시스라는 또 다른 세계', '나는 진정한 이반!'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질적 주제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본질의 의미는 '영혼의 디아스포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성소수자 커뮤니티간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호보완을 통해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커뮤니티 활동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성소수자 중에서도 다양성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 현장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소외된 집단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바탕으로 한 관심과 지원 및 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성소수자, 성소수자 커뮤니티, LGBT, 질적연구

\* 본 연구는 저자의 2015년도 석사학위논문을 축약한 것이다.

<sup>+</sup> 주저자

<sup>++</sup> 교신저자

##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가족, 친구 등 주변으로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성과 성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함으로써 오는 소외감과 비연대감을 경험하고 있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드러낼 경우에 부정적인 시선과 태도를 경험하게 되어, 성소수자는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강병철, 2011:404). 그러므로, 성소수자에게는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하는 성소수자와의 만남과 교류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존재하며,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상호 간의 소통을 활발히 해주는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성소수자들은 커밍아웃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모두 가족, 학교, 직장, 군대, 교회 등의 일반적인 커뮤니티에서 적응하고 생활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커밍아웃이후에 이성애자로부터 직접적인 차별, 폭언이나 폭력을 경험함으로써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실시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2014)에서는 성소수자 67.7%가 직장 내에서 조롱과 차별, 폭력을 경험하며, 66.4%가 혈연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폭력이나 학대, 방임이 실태를 보고하였다.

한편으로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경우 성소수자는 상대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당하는 경험이 적고 보통의 일상을 얻게 되지만, 자신을 늘 숨겨야 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짓말과 거짓행동으로 인한 타인과의 만남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불편함과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일반 커뮤니티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을 우려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오는 우울과 불안은 이성애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호림(2015)은 성소수자는 한국 사회의 다른 소수자 집단에 비해 일반인의 사회적 거리감과 부정적 편견이 높은 집단이며 이러한 사회적 낙인에 대해 많이 인식하고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의 수준이 높은 성소수자일수록 우울과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성소수자들은 커뮤니티 안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성과 성정체성에 대한 타인의 수용 여부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성소수자에게 자신과 같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으로 구성된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커뮤니티 활동은 서로 간의 만남과 소통,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성소수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문적인 영역에서 또한 성소수자 집단의 비가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서 연구 주체가 성소수자가 받는 차별과 이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 이외에 다른 연구의 주제 및 영역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 또한 기존의 성소수자 커뮤니티 관련 연구는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나 인권단체활동을 주제로 하였기 때문에 최근 활발하게 통용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성소수자들의 소통과 경험을 담지 못했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나아가 인권단체나 오프라인 단체 중심의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성소수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가 이루어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자신을 드러내며 활동하는 상대적으로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다수의 성소

수자들의 경험까지는 알려지지 않다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권단체와 온라인-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다양한 참여형태를 보이는 성소수자들을 모두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오르기(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하여서 성소수자인 연구 참여자 8명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활동 경험 속에 드러나는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의미 본질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둘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참여경험은 어떠한 의미 구조에 있는가? 위의 연구 문제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성소수자에게 있어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참여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본질의 구조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 2. 문헌고찰

### 1) 성수자의 개념 및 연구 동향

보편적으로 성소수자는 이성애자를 제외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로 지칭을 하며 과거에는 동성애자만 성소수자의 범주 안에 포함되었지만 점차 그 영역이 다변화되어지고 있다. 그러한 다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성소수자를 이성애자를 제외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가진 모든 자들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때 성적 지향의 의미는 상대에게 성 관계와 연애적 감정을 느끼는 상태까지 포괄할 수 있으며(김성연, 2013:4), 성정체성은 성적지향과 상호 독립적으로 자신의 성별을 구분하여 정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적 지향에 있어서 소수자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등이 속하며 성정체성에서 소수자는 간성, 트랜스젠더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성소수자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라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범성애자, 퀴어, 트랜스젠더, 간성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성애자는 성적 지향이 동성에게 향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양성애자는 성적 지향이 양성애인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는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성과는 다른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며 이 외에 간성은 생식기 및 성적 시스템의 선천적인 기형을 갖고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고 퀴어는 “지배적인 문화적 관점의 성 혹은 성역할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사람”을 의미한다(김성연, 2013:5). 그리고 자신의 성과 타인의 성별에 구애 받지 않은 채, 사람에게 성적·연애적 감정을 가지는 사람을 범성애자라 지칭하며 누구에게도 성적 지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무성애자라 지칭한다.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의 범주는 점차 다변화되며 성소수자의 규모도 타 소수자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비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와 관련된 연구는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강병철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내 성소수자 인구는 대략 100만 명에서 500만 명에 이른다고 하였으며

만약 100만 명으로 추정한다면 2007년 한국일보에서 조사 발표한 주한외국인 수에 근접하고, 500만 명으로 본다면 2006년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한 노인인구에 육박하는 숫자”라고 비교 설명하였다(강병철, 2011:1). 그리고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동성에 성향을 나타내는 빈도는 12.7%이고 “이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동성에게만 관심을 갖는 경우는 여중생 2.2%, 여고생 1.5%, 남고생 1.3%, 남중생 0.8%”로 나타났다(이영식 외 3명, 2005:236). 미국의 경우 성소수자 현황을 살펴보면 약 3.5%가 남녀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이고 0.3%가 트랜스젠더로 나타났다(Gates, 2011:6).

하지만 국외의 연구에서 성소수자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 대상 중 또 하나의 집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성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모델이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되고 논의되고 있지만(성정숙과 이현주, 2010:176), 국내에서는 해외의 연구에 비해 성적 소수자에 관한 이슈가 활발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2) 성소수자 관련 연구 동향: 차별 및 폭력

성소수자 관련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임을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적 요건으로 정확한 성소수자의 현황 파악도 쉽지 않은 실정이며, 연구 대상자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차별 및 폭력과 관련한 성소수자 관련 연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신건강과 사회적지지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성소수자들은 차별적인 경험, 성소수자에 대한 낮은 수용도로 인한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이성애자가 성소수자에게 하는 폭력과 폭언 등의 동성애 혐오와 사회적 낙인 의식은 성소수자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며(이호림, 2015:71), 그리고 우울과 불안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짐이 되는 느낌과 자살생각, 절망의 마음은 실제 자살로 이어지기 쉽다(김성연, 2015:45). 또한, 국외의 연구에서는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자란 일부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를 바탕으로 폭력, 살인이라는 결과로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Garnets, Herek and Levy, 1990). 그러므로, 이성애자가 성소수자에게 갖는 혐오적인 생각과 행동은 성소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 요인의 바탕에는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소수자에 대한 낮은 수용도라고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행동 경험의 영향으로 성소수자는 상대적으로 이성애자보다 스트레스 및 심리적인 불안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다수의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때 받은 부정적인 경험은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수용을 하는 과정의 거리를 넓힐 수 있다(강병철, 2011:404). 또한, 청소년 시기의 성소수자는 친구들과로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 수용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기초하여 쉽게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청소년기의 성소수자는 비밀을 만들게 되고 결국 일상의 불편함과 깊은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주며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박임효, 2008:34).

둘째, 성소수자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커밍아웃, 차별과 학대의 경험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성소수자의 우울과 불안이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이호림, 2014:54).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성소수자의 정신 건강에 보호요인이 되는 동시에 차별, 학대의 경험에도 영향을 주기도 한다. 실제 가족, 학교, 직장, 군대 등의 일반 집단에서 성소수자는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차별과 폭언 및 폭행을 당하기도 하며 특히 가족의 지지는 가장 큰 사회적 지지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는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가족의 지지를 받기 쉽지 않다. 그리고 가족에게 성소수자임을 드러내지 않을 때 받는 높은 가족의 지지는 오히려 낮은 커밍아웃의 결과를 보이게 된다(강병철, 2011:401;이혜민 외 2명, 2014). 또한 학교에서는 청소년 동성애자 과반수 이상이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응답자 20%는 신체적인 폭력의 위협이나 개인소지품이 망가진 적이 있고 응답자 10%이상은 “신체적인 구타나 무기로 공격을 당하는 것과 같은 매우 심각한 폭력”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러한 경험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드러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없는 청소년보다 폭력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강병철과 하경희, 2006:435). 직장과 군대에서도 성소수자는 차별적 행동을 경험하게 되는데 실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성소수자 67.7%가 직장 내에서 폭언 및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군대가 성소수자에게 가장 비우호적인 곳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에 대한 경험은 커밍아웃을 한 성소수자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성소수자보다 더 많은데 실제 일반 사회적 집단에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 중 73.7%가 차별과 폭력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정체성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더라도 과반 수 이상이 차별과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음이 조사결과 나타났다.

### 3) 성소수자 관련 연구 동향: 성소수자와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라틴어로 같음을 뜻하는 단어, 즉 같이 모두에게 공유가 된다는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리고 같음이라는 단어는 함께와 서로 봉사하다는 뜻의 합성어로 우리나라의 공동체와 그 맥락이 상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커뮤니티는 공동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으며 지역성을 전제로 출발하였지만 교통의 발달과 도시화를 배경으로 점차 그 영역의 흐름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장수지와 김수영, 2012:2-3), 현재는 지역성과 무관하게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은 과거에 정보 공유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이었지만 점차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관심사가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연대를 이루어나가고 커뮤니티의 장으로 변모한 것이다(강호정, 2010:156). 지금까지의 성소수자와 관련한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는 첫째, 정보 교환과 상담의 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 둘째, 커뮤니티와 성소수자의 교류와 소통의 공간 형성, 셋째, 성소수자 커뮤니티 문화 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성소수자에게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청소년기 다수의 성소

수자들이 성적 지향과 성적체성에 대해 인지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상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 그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 청소년기 때는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적체성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가장 높을 나이이고 시대가 지날수록 성에 대한 궁금증을 억제하지 않고 표출하게 되며 성소수자도 다르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2009년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동성에 경험과 관련된 사이버상담 건수에 대한 조사 결과 2005년도에는 112건, 2006년도에는 171건, 2007년도에는 178건, 2008년도에는 257건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이영선 외 2명, 2012:130). 그러므로 성소수자는 성소수자임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일상에서 이성애자와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한 만남과 교류, 소통의 측면은 중요하다. 일상에서 성소수자는 타인과의 대화에 있어서 공감과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타인에게 이성애자인 척 거짓말을 하거나 대화에 원활히 참여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성정숙과 이현주, 2010:186-187). 그러므로 성소수자에게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적체성에 대한 정보획득을 하는 것 외에 그곳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 파트너 형성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소수자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받는 공감과 이해, 위로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만남은 파트너 관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일상에서 쉽게 자신의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는 성소수자에게 파트너를 형성하여 상호 성적 관계를 이루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성소수자의 독특한 문화 형성의 바탕에서 커뮤니티가 있으며 이러한 커뮤니티를 통한 문화 형성은 이성애자의 이해와 공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성소수자는 오프라인 공간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방문하는 과정을 통해 그 지역을 자기 장소화함으로써 성소수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부심을 부과해주며 지역 내에 지배력과 주도권을 가지는 집단으로 형성할 수 있다. 그 예로 종로구 낙원동을 들 수 있는데 이서진(2007)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소수자가 종로구 낙원동을 기반으로 장소 형성을 하는데 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인 특성과 정체성은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지역 경관에도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성소수자에게 갖는 수용도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기술 하였다.

한국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에 와서 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와 학계의 관심이 커지게 되었지만 사회복지학 관점에서 성적소수자들의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남궁선, 2008:4) 인권단체를 비롯하여 현재 다양한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발달하기 시작하였지만, 일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성소수자 연구들은 다변화된 커뮤니티의 양상과 성소수자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성소수자들이 받는 차별과 폭력 등의 사회적인 현상과 정신건강, 그리고 사회적 지지체계로서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이 되었다.

### 3. 연구방법

#### 1) 현상학적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핵심은 인간이 경험한 것들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는 데에 있다. 이 때 현상의 본질이란 어떠한 사상을 “현재의 바로 그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 없이는 그것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이남인, 2006).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의미본질을 파악하는 연구로써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했으며 그 중 Giorgi의 분석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Giorgi의 분석방법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특징이 있다. 그 중 첫째는 현상학적 사고방식을 거치지 않은 채 연구 참여자의 자연적 태도에서 비롯된 경험을 연구자의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를 거쳐 기술하는 것이다. 둘째는 의미단위의 전환이다. 즉, 의미단위 밖에 존재하는 맥락을 연구자의 학문적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셋째는 이러한 의미단위를 구조로 통합해야 하는 데 이 때 구조는 드러난 현상과 관계가 있는 본질적이고 추상화된 범주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소가 한 가지라도 제거되거나 변형되면 구조는 변화하게 된다.

#### 2)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편의 추출방법과 눈덩이표집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학문적 연구에 관심이 있으며 연구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성소수자 교회 및 인권단체를 통하여 초기 참여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교회 및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성소수자들의 본 연구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눈덩이 표집을 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클럽, 바 등지에서 문화생활을 하는 연구 참여자를 비롯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분들까지 포함하여 연구 참여자 8명을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게이 5명, 레즈비언 1명, 범성애자 1명, 트랜스젠더 MTF 1명임을 밝혀두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정체성에 국한하지 않았다. 실제 선행연구에는 ‘게이 관련 장소’, ‘레즈비언 관련 장소’와 같이, 특정 정체성에 국한 한 논문이었지만, 이러한 선행연구에는 성적 지향과 정체체성으로 구분하여 구성되는 다양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이와 같이 선정 하였다. 둘째, 온라인,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연구 참여자 뿐 아니라, 인권 쪽에서 일을 하는 대상들도 선정을 하였다. 즉, 커뮤니티라는 개념을 더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참여자 표기	연령	직업	거주 형태	커밍아웃 여부		
				가족	동성친구	이성친구
A	24살	대학생	지인과 동거	안 함	안 함	함
B	36살	자영업	가족과 거주	안 함	안 함	안 함
C	24살	대학생	가족과 거주	안 함	고등학교 친구에게 함	함
D	29살	예술계 동 프리랜서	자취	함	안 함	함
E	29살	인권 활동가	지인과 동거	함	함	함
F	24살	인권 활동가	지인과 동거	안 함	안 함	함
G	28살	휴학생	지인과 동거	안 함	2명에게 함	안 함
H	36살	취업준비생	자취	함	함	함

###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비 구조화된 개방형 면접지침서로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5월-10월, 약 6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연구 참여자 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 하였는데,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힌 자가 없었음을 밝힌다. 또한, 면접 사전·사후만남 3회와 면접을 위한 만남 1회로 이루어졌으며 1회당 약 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접시간은 연구 참여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대로 정하였는데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 저녁을 선호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면접 장소를 정할 때 연구 참여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깝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위치를 우선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와의 면접은 스터디 전용 카페나 이태원 등지의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면접 장소를 지정할 때 연구 참여자에게 문의 및 동의를 구하였음을 밝힌다.

면접 진행시 자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모두 녹음하였으며, 녹음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면접의 녹음 이후, 녹취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고 면접 당일 녹음한 내용은 녹취록을 만든 후 저장하여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음을 밝힌다.

### 4) 연구의 엄격성/진실성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난 뒤 이에 대해 동의를 표하며 인터뷰에 응할 시에만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인터뷰 전에 이메일을 통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정리해 줌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에 대한 사전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인터뷰 때에는 연구 참여 동의와 추가 인터뷰에 대해 요청을 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받았고, 인터뷰를 녹음하여 녹취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과 중립성을 활용”하였다(Guba and Lincoln, 1994:양민욱, 2012 재인용).

첫째, 사실적 가치는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구의 의미 본질에 대한 파악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는 면접에서 얻어진 내용과 의미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개인 연락을 하여 그들의 경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고, 면접 내용 중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락을 통해 설명을 부탁하여 확실히 하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적용성은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구결과가 다른 맥락이나 주제에도 적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질적 연구에서는 정확하게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연구 참여자의 선정이 중요하다(양민욱, 2012). 그래서 먼저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에 라포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연구자는 이를 충분히 담아내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일관성은 양적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관된 정보의 확보를 위해 연구방법과 자료 수집 및 분석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하였고,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회복지학 박사, 논문지도교수, 다른 논문 심사교수를 통해 연구자의 삼각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중립성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편견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깨닫고 그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졌다. 또한, 퀴어 퍼레이드를 비롯하여 그들이 주최하는 인권 영화제에도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참여 행동이 연구자가 성소수자를 잘 알고 있다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마음에 지속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시의 했던 말의 의미에 대하여 되묻는 과정을 거쳤다.

#### 4. 연구 결과

〈표 2〉 상황구조

본질적 주제	도출 주제	의미 단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떠돌이의 삶	-원만한, 혹은 원만하지 않은 생활 속에서의 갈등함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
	사막 속 오아시스를 찾아	-성소수자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왜 진입하게 될까?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느껴본 동질감과 편안함
오아시스라는 또 다른 세계	세상으로부터의 탈출구	-커뮤니티를 통해 찾은 나의 존재 가치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남과 소통
	사회의 축소판	-커뮤니티도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깨달음 -커뮤니티의 구조에 대한 불만과 갈등

본질적 주제	도출 주제	의미 단위
나는 진정한 이반!	또 다른 빛 으로의 귀환	-커뮤니티에서 다른 커뮤니티로의 이동 -결국 커뮤니티 안에 속할 수 밖에 없는 이반
	끊임없는 달리기 인생	-커뮤니티를 통해 한 뼘씩 성장하는 나의 모습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새로운 목표 -커뮤니티 안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성소수자만의 문화

## 1)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 (1) 떠돌이의 삶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일상적으로는 가족 및 교우관계에서 소외감을 경험하지만,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들과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저는 대인관계가 활발한 편이었고 일반적으로 사람을 사귀는 것을 좋아해서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어요. 선생님하고도 관계가 좋았고 학교 학창시절에는 반장이나 학생 임원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깐 뒤에서 욕하는 애들은 있어도 앞에서 욕하는 애들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는데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게 자신의 정체성이 아웃팅 된 것 만으로도 따돌림을 당해서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연구 참여자 B)

‘내가 동성애자 일까?’ 그런 두려움은 전혀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드렸어요. 두려움이라는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고민은 아직까지 있어요. ‘왜 나는 남자를 좋아하게 됐을까?’ 하지만 내가 동성애자여서 두려운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성장했고 학창시절에 애들이랑 잘 지냈어요. (연구 참여자 D)

하지만 일상생활의 원만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친구,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더라도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이 되지 않는 데에서 오는 불편함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그러한 불편함은 연구 참여자들이 성소수자임을 수용하고 난 뒤의 일상에서 더욱 느끼게 되며 결국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는, 떠돌이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기도 하고 타인에 의해 선택당하기도 한다.

취업할 때부터 나올 때까지 불편해요. 예를 들자면, 이직하게 되면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보면 항상 하는 질문이 ‘결혼을 언제할거냐?’ ‘결혼을 했느냐?’ ‘여자 친구는 있는지?’ 나와요. 저는 항상 나왔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제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점점 답을 쌓게 되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 B)

몇 연구 참여자들은 고민 끝에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드러내었지만 거부당한 경

힘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들은 타인이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떠돌이의 삶을 선택 당하게 된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을 하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그 때 커밍아웃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2-3달 정도 잘 지내다가 한 명씩 멀어지는 거 예요. 그래서 ‘아 내가 실수 했구나.’ 그 뒤로 그 친구들 5명과 현재까지 연락 안 해요. 우연히 그 친구들 무리를 마주쳤는데 제가 숨었어요. 그 뒤로 이성애자인 친구들에게는 커밍아웃을 절대 안하죠. (연구 참여자 C)

## (2) 사막 속 오아시스를 찾아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수용한 후에도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게 된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호기심, 외로움, 자신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대한 확실 없는 불안감 등의 이유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진입하게 된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던 시절의 연구 참여자도 결국은 커뮤니티를 찾아 진입을 하게 되는데 즉 성소수자가 커뮤니티를 찾고자 하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본능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커뮤니티 안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것 같은 신기함과 만족스러움, 편안함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면 입양된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자신의 친부모를 찾는 경우 같아요. 저는 저와 같은 게이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한 후 인터넷을 검색해서 커뮤니티를 찾았어요. 이반은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도 자신의 다른 점을 알기 때문에 많이 외롭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는 존재니까. 즉 그냥 제가 이반 이니까 이반을 찾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 B)

실제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에서의 만족과 불만족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진입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이들에게 잃어버린 자신의 쌍둥이를 찾으려고 하는 행동과 같은 본능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커뮤니티 안에서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함과 일상에서의 탈출구와 같은 느낌을 가진다.

나의 마음의 고향? 그냥 가면 편한 느낌? 편한 곳이죠.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고 그런 거를 의식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중략) 어떻게든 이성애자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하는 전체가 있어요 내가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전체 하에 만나는 거니깐 불편할 수 밖에 없어요. 남자애들 모이면 여자 얘기 하는데 여자 좋아하는 척 한다거나 이런 거 자체가 괴리감이 굉장히 크고 불편하죠.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들은 커뮤니티를 진입했을 때의 감정에 대하여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기초한 편안한 마음, 그리고 성소수자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데서부터 오는 신기함이라고 설명한다.

당시에는 90년대였거든요. 인터넷이 막 발달할 때였지만 모뎀에 파란 화면으로 쓰거나 실상 보급률이 별로 아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동성애자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죠. “우리는 함

께 연대할 것이다! 함께 인권운동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거창한 의미보다는 그냥 두근거렸어요.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야기 해보고 싶다.’, ‘누군가 저기 있다.’ 하는 마음 인 거죠. (연구 참여자 H)

연구 참여자들은 자연스러운 이끌림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커뮤니티 속에서 안락함과 편안한 마음을 느끼며 그 안에 머무르게 된다.

## 2) 오아시스라는 또 다른 세계

### (1) 세상으로부터의 탈출구

연구 참여자들은 커뮤니티 속에서 자신과 같은 성소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한다. 위와 같이 존재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작용하는 커뮤니티는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의미로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연구 참여자들은 커뮤니티 안에서 기쁨, 힘듦, 슬픔, 분노 등의 다양한 감정에 대해 커뮤니티의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공감, 이해를 얻는다.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비슷한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노니까 저도 표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점차 자유로울 수가 있고 노는 것도 재미가 있고 (연구 참여자 G)

연구 참여자에게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불필요한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 공간으로 그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는 커뮤니티 안에서 더 자유로운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다.

또래랑 학교가 사실 저는 싫었거든요. 학교에서 또래친구들은 너무 귀찮고 계속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니잖아요. 무리를 벗어나면 또 스트레스 받고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만난 형, 누나들은 그렇지 않고 무엇보다 내가 게이인 걸 드러내고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오프라인 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새로운 감정과 편안한 감정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신나기도 했고 (연구 참여자 F)

연구 참여자들은 벽장 밖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거나,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서 기인하는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고 고백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오며 소통이 되지 않는 곳으로부터 소통이 되는 곳으로의 탈출을 하는 공간으로써 비유하여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 (2) 사회의 축소판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만의 공간,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느 다른 커뮤니티처럼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래도 일반인이 일반 커뮤니티를 생각하는 것보다 성소수자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약간 좀더 깊은 유대는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더 같은 편 만났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좀 만나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중략) 그 안에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사기도 생기고, 거짓말도 생기고, 친구관계 문제도 생기고, 하하 호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족 안에도 하하 호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지 다 완벽한 관계는 없으니깐.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들은 커뮤니티의 규모가 작다보니, 자신에 대한 와전된 소문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한 불안함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활동하며 상대 성소수자와 일회적인 만남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상대방과 만남 목적이 일회성인 경우 서로 간의 성욕구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 결국 커뮤니티가 성소수자에게 있어서 단지 성 욕구를 채움 받는 공간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까 염려된다고 덧붙인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다수의 커뮤니티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으로 나뉘어 생성되어 있으며 오프라인 커뮤니티도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 대상에 따라 구분되어 클럽과 바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인권단체도 위의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게이들은 게이들끼리 놀고 레즈비언은 레즈비언들끼리 놀고, 굉장히 레즈비언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클로짓 한 것 같아요. (중략) 단체들, 예를 들면 한국게이인권단체는 거의 게이 중심으로 움직이고 레즈비언 상담소 같은 곳은 레즈비언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들 스스로 벽을 만드는 건 아닌데 거기에 주력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누어지는 거죠. (연구 참여자 F)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특성 중 한 가지는 주로 동일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로만 커뮤니티가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성사의 특성으로 성소수자들 간의 융화가 어렵고 자신과는 다른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성소수자 내부에서 위계화가 이루어지고, 옹호적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 F와 연구 참여자 G는 커뮤니티에서 성정체성이 서로 융화되지 못하고 구분되어 지기 때문에 서로 문화적 공유가 잘 되지 않음을 이야기 한다.

커뮤니티도 융합이 안 되더라고요. 뭉치는 게 되게 강하고 거기서도 비슷한 애들 끼리 하고 약간 똑같은 거를 찾는 게 강한 거 같아요. 좀 약간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오픈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연구 참여자 F)

### 3) 나는 진정한 이반!

#### (1) 또 다른 빛으로의 귀환

연구 참여자들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일상에서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경험하며 이와 같은 허망함을 해소하고 자신이 구원받을 곳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진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가 생각하는 이상과는 괴리가 있는 커뮤니티를 접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아가듯, 다른 커뮤니티를 찾아가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이 커뮤니티를 이동하는 이유로는 커뮤니티 속 사람들 간의 갈등, 커뮤니티 정체성과 연구 참여자의 정체성이 맞지 않은 것이 있다. 즉 처음 커뮤니티를 진입했을 때는 자신과 같은 사람인 것 같은 신기함과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도 될 것 같은 편안함으로 가족 같은 기분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타 커뮤니티와 같이 구성원 간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자신의 색깔과는 다른 커뮤니티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곧바로 넘어 왔어요. 왜냐하면 아닌 거야. 나랑 안 맞았어요. 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보를 원했지, 친구를 원했던 거지 남자를 원했던 게 아니니깐. 물론 남자도 좋죠. 그런데 아직은 내가, 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더 급했던 건 정보, 호르몬이나 의료적 정보. 그 다음에 나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던 거 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랑 맞지 않죠. 뭐 이 커뮤니티의 성격이 만남이 위주라면 제가 이동한 커뮤니티의 성격은 다른 의미의 만남, '우정'이었죠. 우정과 의료적인 정보, 이게 난 더 맞았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바꿨죠. (연구 참여자 E)

하지만 여기서의 물음은 연구 참여자들 모두 다양한 원인으로 커뮤니티를 이동하지만, 커뮤니티를 떠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왜 연구 참여자들은 성소수자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를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는 모두는 일상에서 일반인과의 소통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성소수자로 이루어진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에서의 외로움과 고독함의 이유로 잠시 커뮤니티 활동을 중단하기는 하지만, 커뮤니티를 아예 떠나있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저희가 가입한 홈페이지는 가입하는 방법이 남자여야 되고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되고, 만약에 일반 남자가 들어오면 그건 완전히 아무 홈페이지에도 전체적으로 아웃팅 되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위험을 무릎 쓰고라도 소통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통 공간이 거기밖에 없으니깐. 한정되어 있고. (연구 참여자 A)

사람은 자기가 편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어 하지 불편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은 사람은 뭐 얼마나 있겠어요. 일 때문에 라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엮이지 않는 이상 자기가 편한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싶지 누가 구지 불편한 사람이랑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친구도 같은 정체성을 가

진 친구,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 갖고 싶고 애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도 털어놓고 고민 상담도 해보고 싶고 그래야지 자기 맘이 편한 거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 쪽 커뮤니티에 가입할 수 밖에 없어요. (연구 참여자 B)

확실히 이쪽 사람들 만나는 게 편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게 큰 거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제가 이쪽에서 연애를 하거나 동성 분들을 만났을 때 고민거리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성 친구랑은 이게 안 되죠. 일단 애는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점점 나이가 가면 갈수록 이 쪽으로 치우치는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G)

커뮤니티 쓸모하나도 없고 그냥 내 인생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이 왔을 때 커뮤니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익숙한 얼굴들이 그리울 때 한 번씩 발 담그기도 하고 내가 틀린 게 아닌데 하도 세상하고 싸우다 지치면 그곳에 갔을 때 맞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하고 재확인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곳에 있는 거죠. (연구 참여자 H)

또한 연구 참여자 D는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동반자를 찾고 싶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소수자는 일반인과 달리 일상에서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관계가 발전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 자연스레 커뮤니티를 통해 동반자를 찾게 된다고 덧붙인다. 이성애자만 수용되는 사회적인 구조로 인해 성소수자는 커뮤니티를 잠시 벗어날 수는 있어도 영원히 떠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점차 다변화되며 발전되는 불씨가 되기도 한다.

## (2) 끊임없이 달리기 인생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커뮤니티에 실망과 불만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안에 속해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커뮤니티를 찾아 헤맨다. 그러한 달리기 인생 속에서 연구 참여자는 내적으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때로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지게 되기도 한다.

게이 커뮤니티에 들어갔죠. 1년 정도 게이 커뮤니티를 찾아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때 알았어요. 아, 트랜스젠더 라는 게 있고 트랜스젠더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내가 게이 아니라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그 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게이 아니라 트랜스젠더라는 걸 알고 군대를 간 게 힘들긴 했죠 안 맞으니까. 근데 어차피 초, 중, 고 때도 다 안 맞았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용기가 생겨서 첫 번째로 군대에서 제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커뮤니티 안에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이제 용기도 생기고 “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조연도 얻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내가 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에서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회사에서나 뭐 친구들, 뭐 동아리에서도 제 정체성을 밝히는 데 쉬워졌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권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나?” 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A와 연구 참여자 E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동 중에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뛰어들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심 후에 주변 사람들 및 자신이 속한 일반 커뮤니티에서 성소수자임을 드러내었다. 이 때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비단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의 면도 있지만, 사회에서 자신의 성향이 아웃팅의 한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며 온전히 모든 면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야 했던 과거의 성향에 대해서도 탈피해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오는 성장이라고 추측해 보고자 하는데, 실제 연구 참여자들에게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을 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내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 참여자에게 있어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사람들은 일상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더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자신에게 용기와 지지를 주는 지지자가 되어준다.

그 때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무서운 게 없었고 오픈리 레즈비언<sup>1)</sup>이 되었어요. 나중에 어떤 직장은 모두가 제가 퀴어인 거 알고 있었고 같이 회식에도 애인과 같이 가기도 했으니깐요.

저는 운이 좋았던 것도 같아요. 제가 레즈비언인 것에 대하여 죽도록 힘들었지만 동시에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우물 안 개구리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성애자는 세손가락 안에 꼽았고 이성애자 남자는 전무한 20대를 보냈거든요. 저는 어찌 보면 커뮤니티 안에서 판타지를 살았는지도 몰라요. 안전하게 살았죠. (연구 참여자 H)

일상에서의 원활하지 않은 소통으로 결국 커뮤니티로 귀환을 하는 만큼 성소수자에게 있어 성소수자와의 교류와 소통은 중요하며 그 과정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기도 한다. 그러한 정서적 지지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는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지게 되기도 한다.

주변에 저를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사춘기, 그 청소년 시절에 꿈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 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에서 일하면 다른 아이들이 저와 같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만약에 그 친구가 꿈을 위해서 준비했다면 목표를 잡고 한 번이라도 ‘여성이 돼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해야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지.’ 라는 계획과 생각을 했다면 아마 그 청소년 시기는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통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저도 못했거든요. 당장 내 정체성 측면 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막상 호르몬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더 떨시를 당해요.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니깐 저의 목표는 이 곳에서 일하면서 청소년 친구들이 용기를 얻고 ‘너는 다르지 않다.’ 라는 걸 알려 주면서 ‘너는 그 시간에 꿈을 키워야 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E)

처음에 퀴어 바닥에 신앙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는 애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나 나를 싫어한다고 다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내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20명 정도 전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나중에 “장군 너네 교회 싫다. 교회 다니기 싫다. 장군이 목사를 해라.”

1) 오픈리 레즈비언 :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상대방에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함.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게 내가 있는 이 곳에 하나님은 더 필요한데 하나님을 나와 같은 성적지향의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특히 하나님이 동성애자의 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곳에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서 신학의 길을 갈까하는 꿈이 생겼었어요. (연구 참여자 H)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커뮤니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시대를 수용해 새로운 커뮤니티를 창조해 내기도 하는데 그 예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다양하게 확장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 수 있다. 실제 최근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개인 SNS, 어플을 많이 사용하는 맞물려 성소수자들은 개인 SNS와 어플을 통해 만남을 가지며 온라인 성소수자 홈페이지는 점차 다양한 콘텐츠로 발달하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과 후가 커뮤니티가 많이 다른데 이를 통해서 예전에는 가까운 곳에 성소수자가 없었던 게 아니지만 그런 커뮤니티 존재도 알기 힘들고 그래서 만나기가 어려워져 성소수자 본인들도 자신을 숨기고 살았는데 지금은 커뮤니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기부터 다 이 커뮤니티, 자기만의 커뮤니티, 자기만의 성소수자만의 커뮤니티라든지 커뮤니티를 와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자기만의 정체성을 확립 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죠. 그래도 이런 커뮤니티가 없었더라면 과거처럼 본인이 너무 힘들어 하고 괴로워하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그러다가 결혼에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뒤늦게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한다든지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커뮤니티 문제로 인해서 또 인터넷의 발달에 힘입어서 지금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어요. 지금 다들 일찍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고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가려고 더 빠른 시기부터 노력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고 친구를 사귀든, 연애를 하든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들을 포함하여 성소수자들의 오프라인 장소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은 그만큼 성소수자들만의 문화가 내재되어 있으며, 지역별로도 성소수자들의 이용증가나 감소에 따라 그 문화적인 색채가 변하게 된다. 이처럼 성소수자들은 새로운 커뮤니티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곳에서 끊임 없이 자신만의 색채로 물들어 가는 과정을 거치고 특별히 성소수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은 그만큼 성소수자들만의 문화가 더 깊고 활발하게 물들어지게 된다.

지역마다 다 다르고 느낌 자체가 다 다르고, 사람들 자체에서 풍기는 그런 것도 다 달라요. 솔직히 말해서 서울의 종로-이태원에서 놀다가 ○○ 지역으로 이동해서 놀면서 느낀 게 '되게 사람들이 보수적이다.' 이런 게 딱. 되게 술자리로 비교하면 서울만해도 엄청 시끌벅적 한데 여기는 오면 거기 보다는 조금 조용한 분위기고 되게 어떤 말을 할 때도 거기 있을 때보다 훨씬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애인이랑 부산에 간 적이 있어요 애인의 본가가 부산이라서. 근데 거기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들을 포함한 성소수자들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커뮤니티에서만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며, 자신이 커뮤니티 속에서 갖는 불만을 발판삼아 기존의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기도 한다.

사실 대학생들이 약간 청소년과 성인의 경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청년들이 성소수자 위지원센터에서 자진해서 봉사하고 싶어 해요 이런 마음을 아니까. 멘토를 요청하는 성소수자 대학생들도 많고 아니면 상담자로 오는 대학생들도 있고 약간 이래요. 그리고 ○○라고 이 대학모임 연대가 있어요. 요새는 엄청나게 이 대학모임들이 다시 부흥하는 시기여가지고요. 따로 생기는 대학모임도 엄청나게 많고 약간 연대하는 것도 좀 더 끈끈해지는 편이에요. (연구 참여자 F)

제가 다니고 있는 성소수자 지지교회도 작년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 그래서 한국에 어린 청소년들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예배를 바에서 했었어요. 프리한 스타일로 해가지고 저녁타임에 일요일날. 저희가 아무래도 후원이 잘 안 되다보니까 공식적인 장소가 아니라... 장소를 구하는 거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웠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 같은데 사장님이 장소를 예를 들어 일요일 오후 같은 경우는 장사를 안 하시니까 그 타임에 장소를 빌려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목사님이 청소년들도 우리가 이렇게 끌어와서 애들을 보호해야하는 사명감이 있으셨고 그래서 예배시간을 바꿨죠. 일요일 11시로. (연구 참여자 G)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의 갈등과 불만으로 다른 커뮤니티로 이동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하며 커뮤니티를 자신만의 색채로 물들이며 달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어쩌면 타인에 의해 강요되어 할 수 없이 떠돌이의 삶을 선택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도 떠돌이의 삶은 변하지 않음을 경험한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 안주하거나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리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는 내적인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목표, 그리고 성소수자의 문화 형성과 발달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 4. 결론 및 제언

###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Giorgi의 기술학적 현상학 방법을 바탕으로 성소수자인 연구 참여자 8명이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동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의미 본질의 구조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며, 연구 결과 의미 본질의 흐름을 “영혼의 디아스포라”라고 분석하고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들은 소통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커뮤니티인 오아시스를 찾아 떠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정착하지만, 오아시스 또한 다른 세상과 별다를 바 없이 갈등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느끼고 또 다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고 그 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순환적 과정을 의미구조의 본질로 기술하였으며, 본질적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상에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연구참여자들은 그러한 갈등을 이유로 자연스럽게 성소수자 커

커뮤니티를 찾아서 진입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사막 속 오아시스를 찾은 것 같은 신기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오아시스라는 또 다른 세계'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과 같은 성소수자를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을 했으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완전한 자신을 만들어 줄 것 같은 오아시스의 실체를 경험한 성소수자들은 결국 이 곳도 사회의 축소판일 뿐임을 깨닫게 되었다. 셋째,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참여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구조와 사람들로 인해 실망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의 소외감을 경험하고 싶지 않기에 커뮤니티를 떠날 수 없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아 떠나는 과정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며 '진정한 이반!'이 되어가고 있다.

## 2)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성소수자는 소통하고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헤매이며,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동질감과 편안함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도 사회와 다를 것이 없는 차별과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상처받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에게 적합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찾아가기 위해 떠나고 다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성소수자는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커뮤니티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해 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참여 경험의 의미구조를 통해 나타나는 의미본질의 흐름을 '영혼의 디아스포라'라고 기술하고자 한다. 디아스포라는 우리말로 민족분산 또는 민족이산으로 번역되는데, 단지 같은 민족구성원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분산한 동족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공동체를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써, 이주와 식민지 건설을 의미하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다른 민족의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며 그 예로 소수 집단이나 소수 민족 공동체를 들 수도 있다(윤인진, 2004:12).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에서는 성소수자가 직접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경험한 본질적 의미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게 갖는 양가감정을 드러내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Meyer는 성소수자의 지위는 일반적인 지지자원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소수자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는 새로운 사회적 지지자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Meyer, 2003). 이와 같이, 성소수자에게 커뮤니티를 통한 성소수자와의 만남과 교류는 중요하다고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반 집단에서 받지 못하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청소년 시기 동성애자들은 이반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자기 정체성이 이반임을 인지하게 되며(이지은, 2005:57), 또한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 확인과 자기 긍정을 필요로 하는 레즈비언에게 동성애 바로 알기부터 시작해서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재생산하기 위한 끊임

임없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사회적 연대와 희망을 안겨주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한은영, 2011:144). 그리고 성소수자가 이태원 중심으로 장소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그 곳의 주민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영향을 준다고 설명을 하였다(한유석, 2013:263).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성소수자에게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내적 성장의 발판과 지지 체계로서 역할을 하며 외적인 위협과 편견을 변화시켜 주고 보호해주는 곳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의 긍정적인 경험과 더불어 성소수자가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양가감정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도출했다는 것에 현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한계와 이를 통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커뮤니티 안에서의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인 요소를 커뮤니티 내에서도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나아가 커뮤니티 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상호배타적인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것은 커뮤니티를 이동할 때 성소수자에게 상처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생존과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기하여 왔다면 이제는 커뮤니티 내부의 자유로운 소통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정체성을 확립하여 도약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간의 교류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0대 청소년이 30대 성인들이 주로 교류하는 커뮤니티에 가입할 경우, 무관심이나 배척보다는 1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소개해 주거나 관심사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간 교류가 활성화되어서 정보의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커뮤니티 이동이 수월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각각의 커뮤니티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다른 커뮤니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추게 된다면 커뮤니티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중 트랜스젠더, 범성애자를 포함함으로써 성소수자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연구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 트랜스젠더와 범성애자인 연구 참여자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자신이 사실 동성애자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 중 다수의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게이, 레즈비언은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대한 재확인을 하지만, 트랜스젠더와 범성애자를 비롯하여 양성애자에게도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확실히 발견하고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추후의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동에 있어서 더욱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소수자 내에서도 형태 및 연령 등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제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고령의 성소수자를 찾기 힘들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를 보면 고령의 연구자 비율이 타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 예로 강병철(2011) 연구의 대상자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전체에서 40대 이상이 5.2%를 차지하였으며 연령대 비율이 가장 낮았다. 비슷한 결과로 이호립(2015) 연구의 대상자들의 연령대로 전체 40대 이상이 5.5%를 차지하였으며 연령대 비율이 가장 낮았다. 즉 점차 온라인에서의 커뮤니티는 확장되고 있으며 그 곳을 통해 서로 간의 만남과 소통을 가지는 시대적 변화에서 고령의 성소수자

는 다시 소외되는 현실이다. 또한, 기존 국내 연구에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논문은 진행이 되지만 양성애자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우며, 실제 커뮤니티 내에서도 양성애자의 입지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나영정·정현희(2012)의 연구 대상자 총 3,159명에서 레즈비언은 1,010명 중 양성애자 여성은 832명, 게이 756명 중 양성애자 남성은 124명으로 조사된 것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양성애자는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삶의 현주소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소외된 집단이 없는지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은 성소수자를 치료의 관점, 도움을 받아야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의 레질리언스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레질리언스는 과거 성정숙과 이현주(2008)의 연구에서도 언급이 되었다. 성정숙과 이현주(2008)는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내적, 외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피난처이자 다시 건강하게 살아가는 현장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따뜻한 무덤”으로 표현하였다. 이 때 ‘따뜻한 무덤’의 의미의 뜻은 무덤 자체는 철저한 배제와 소외감, 단절을 의미하지만 신비한 어떤 힘을 가진 단어로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하며 즉 자신의 시체로 비유되기도 하는 헌신을 기반삼아 새로운 생명들이 피어날 것이라는 인간의 탄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드러난 성소수자의 레질리언스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다양한 발전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더 이상 소외된 영역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사회복지 실천현장과의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와 같은 커뮤니티가 사회복지 실천 및 정책현장과의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거리감을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 노숙자, 노인 등의 다양한 소수자를 위한 지원센터의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의 영역은 외면 받아온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공적인 영역에서나 사적인 영역에서 성소수자들을 접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 및 정책 영역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모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양성의 범주 안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소외된 영역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경험이 커뮤니티 밖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적극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커뮤니티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소외 단체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병철·하경희, 2006, “청소년 동성애자의 반동성에 폭력경험과 심리사회적 특성”, 『아동권리연구』, 10(3): 425-440.
- 강병철, 2011, “사회적 낙인 인식이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강호정, 2010, “온라인 공동체(on-line community)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민속과 문화』, 15: 155-172.
- 김성연, 2013,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으로 본 동성애자 자살”,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나영정·정현희, 2014, “성소수자 인구, 커뮤니티를 그리는 작업에서 마주치는 문제들-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여성이론』, 32: 92-108.
- 남궁선, 2008, “성적소수자의 인권형성 과정과 사회복지의 역할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논문.
- 박임효, 2008, “동성애자의 정체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교육학적 탐색”,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성정숙·이현주, 2010, “동성애자인권활동가의 청소년기 경험과 탄력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1: 173-204.
- 이남인, 2006, 『후설의 현상학과 현대 철학』, 풀빛미디어.
- 이서진, 2007, “케이남성의 장소형성-종로구 낙원동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권보민·이동훈, 2012, “청소년의 동성애 경험, 성의식, 동성애 혐오, 우울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19(1): 129-147.
- 이영식·전창무·김소연·고복자, 2005, “성주체성 문제 혹은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과 성 개방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6(2): 231-238.
- 이호림, 2015,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LGB)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혜민·박주영·김승섭, 2014, “한국 성소수자 건강 연구-체계적 문헌고찰”, 『보건과 사회과학』, 36: 43-76.
- 양민욱, 2012, “초등학생 자녀를 둔 미혼양육모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윤인진, 2004,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 한국케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6/14/토, “한국 LGBTI 커뮤니티 욕구조사 최종보고서”, 서울청소년수련관 지하 1층 더기강당.
- 한은영, 2011, ““변태소녀”들의 커뮤니티를 통한 자기표현-이화면날 레즈비언문화제를 중심으로-”, 『현대사회과학연구』, 15: 139-155.
- 한유석, 2013, “성소수자들의 공간 점유와 커뮤니티 만들기-이태원 소방서 골목 사례 연구-”, 『서울도시연구』, 14(1): 253-269.
- Guba, G. and Lincoln, S,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N, K Densin and Y.

- S 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Sage. pp. 105-118.
- Meyer. I. H, 1995, Minority stress and mental health in gay me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38-56.

## A Qualitative Study on the the Meaning of Community Participation among Sexual Minorities

Son, So Yeon

(Support Center for Unwed Mothers)

Lee, Jie Ha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llustrate the essence of meaning through sexual minorities' participant experiences in a sexual minority community. This research intends to explore essential meaning structure revealed in sexual minorities' reasons for joining a sexual minority community and in their experience in community activitie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8 sexual minorities, and data was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 Data analysis was described using Giorgi's analysis methodology in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s a result, the sexual minorities' participation was consisted of 13 meaning units, 6 derived topics, and 3 essential topics, which were 'An unquenchable thirst', 'Another world called oasis', and 'Real estrangement' Moreover, based on the essential topics, the study participants' common meaning of essence was analyzed as 'spiritual diaspora'. Sexual minority communities shall contribute to developments of own organizations through mutual compensations by vitalizing exchanges with other communities based on this study. Also, the communities should the variety in sexual minorities to allow various people's participation. People's awareness on sexual minorities must be transformed so that closed communities can change. Comprehensive knowledge on sexual minorities should be distributed in the social welfare fields so that sexual minorities may search solutions on issues through various access not limited to certain communities.

Key words: Sexual minority, Sexual minority community, LGBT, Qualitative study

[논문 접수일 : 16. 05. 01, 심사일 : 16. 05. 03, 게재 확정일 : 16. 05. 23]